

FOSS CON KOREA 2013

# 한국 금융기업의 오픈소스 활용과 거버넌스 이슈

코스콤  
최기우

# 소개

## 최기우

코스콤 기술혁신단 기술관리TF/기술총괄 팀장



[cgw@koscom.co.kr](mailto:cgw@koscom.co.kr)

# 순서

海外 금융기관의 오픈소스 활용

國內 금융기관의 오픈소스 활용

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? / 한국 금융 산업의 특성

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? / IT 조직 특성

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? / 개발 프로세스 특성

한국 금융기관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주안점



## 海外 금융기관의 오픈소스 활용

- Erlang/High Frequency Trading System, Ericsson
- OpenMAMA, NYSE Technologies
- Lodestone Foundation, Deutsche Bank
- MongoDB

오픈소스의 단순활용을 넘어 공유, 기여, 생태계 조성 단계



## 國內 금융기관의 오픈소스 활용

- Linux 기반 차세대 매매 체결 시스템, 한국거래소/코스콤
- 생·보험사 전자 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차세대 시스템
- 오픈소스 기반 BPM 솔루션 활용 업무 처리 개선, 대우증권
- 오픈소스 기반 web server, WAS, DBMS 활용

검증된 오픈소스의 단순활용 수준



##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? / 한국 금융 산업의 특성

-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 문화 (High return과 동시에 Low risk도 추구)
- 자기 자산 투자보다 위탁 자산 위주의 사업 모델 (투자은행이 아닌 상업은행)
- 한정된 금융시장, 금융상품
- 한정된 투자 전략 (고도의 금융공학이나 분석전략이 요구되지 않음)

기술 발전의 동기가 되는 수준 높고 복잡한 비즈니스 부재



##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? / IT 조직 특성

- 금융상품, 솔루션 중심의 IT조직이 아닌 기술 layer별 silo조직 형태가 대부분
- 비즈니스 부서와 IT조직의 위상 격차 (기획, 예산 집행권)
- IT조직 차원의 기술 연구 개발 여건 미흡 (인적, 물적 자원의 한계)
- 비즈니스 부서와 IT조직 간의 중간자적 역할 수행자 부재

한국 IT 산업의 기형적 구조와 문제점이 그대로 녹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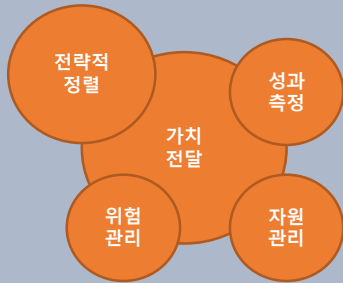


## 무엇이 차이를 만든 것인가? / 개발 프로세스 특성

- 대형 SI기업 주도의 빅뱅 방식 프로젝트
- 일상적인 운용 단계에서의 변경, 개선 최소화 기조
- 국내 금융 IT 솔루션 시장의 미성숙으로 in-house 개발 위주 (자급자족)
- DevOps 개발, 운용 환경을 적용하기에는 legacy 시스템 비율이 높음

**빅뱅 방식 프로젝트 추진, IT 시스템도 유행을 좇음**





# 한국 금융기관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주안점

COBIT, IT governance 5 main focus area 관점

가치 전달	오픈소스 발굴,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정립
전략적 정렬	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에 대응하는 오픈소스 지원
위험 관리	오픈소스 도입, 품질, 라이선스, 계약관계 가이드 제공
자원 관리	제품 경쟁력과 비용/효율성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활용 체계
성과 측정	오픈소스 활용의 결과 측정 및 공유 프로세스



## [Wrap-up] 성공적 오픈소스 거버넌스 정착을 위해

- 거버넌스에 대한 선입견 해소 (오픈소스를 잘 쓰기 위한 best practice 묶음)
- IT 거버넌스가 정착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오픈소스 거버넌스 적용 방안 마련
- 거버넌스 도입에 따른 비용 (거버넌스 = Tools 이라는 인식 타파) 최소화
- 오픈소스의 오용에 따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성공 사례 중심의 접근

한국은 IT선진국이지만 오픈소스 영역에서는 초보자 수준임을 고려



초 협력의 오픈소스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 
자본시장 오픈소스 전문 연구 그룹

오픈소스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

오픈소스 기술 세미나 개최

오픈소스 기술 확산 및 공유

오픈소스를 통한 자본시장IT 발전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



**감사합니다**